

# 6유쾌한노 사람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소식지  
2017 Summer Vol.22



<b>FOCUS</b>	함께여서 더 행복한 우리 동네 맛집 '경로식당'	/ 04
<b>생생정보Talk</b>	누구나 레시피 - 냉이 콩나물밥	/ 07
<b>유쾌한이야기1</b>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관 사업 소개	/ 08
<b>유쾌한이야기2</b>	풍성함이 가득한 설 명절 2017년 설맞이 한사랑나누기	/ 10
<b>유쾌한이야기3</b>	한 고, 한 고 정을 엮고 즐거움을 나누는 '손뜨개 모임'	/ 12
<b>방화6NEWS</b>	1월~3월 복지관 주요활동 한 눈에 보기	/ 14
<b>유쾌한이웃1</b>	우리 마을 따뜻한 이웃 '방화 떡 방앗간'	/ 18
<b>유쾌한이웃2</b>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는 '생명보듬이'	/ 20
<b>참, 고맙습니다</b>	따뜻한 이웃, 선한 이웃 소개	/ 21

## “우리 식당? 최고지! 누가 이렇게 따순 밥 먹어?”

요즘은 자식들도 다 바빠서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줘.  
 그런데 경로식당 와서 밥을 먹으면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먹으니 더 맛있지.  
 요즘 식당 사람들도 많이 친해졌어~  
 나는 예전에 경로식당 봉사활동도 해서 그런가 친해.  
 지금도 다리 아프지 않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사람사는거 뭐 별 거 있나?

-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최금환



### 표지해설

스무번째 표지모델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 (왼쪽부터 임익석, 최금환, 오세희, 윤기옥, 안순자)



“밥 한 끼 함께 하는 게 가족이죠!”

매일 점심 때가 다가오면 어르신들이 경로식당 앞에 모입니다.

“어~ 자네 오랜만이네, 잘 지냈나?”,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뭔가.”, “질서 지키자고~”

구수한 밥 냄새 풍기는 식당 앞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가득 퍼지면 활기찬 방화동의 하루가 시작 됩니다.

## Happy Together(해피투게더)

더 많은 이웃들과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관의 사업들은 함께 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번 스물한 번째 주제는 Happy Together(해피투게더)로  
 이용자, 봉사자, 후원자, 직원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관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함께 해서 행복한 방화동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번 소식지를 보며, 서로를 향해 활짝 웃고  
 마음이 파스해지는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식지 ‘유쾌한 사람들’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유쾌한 사람들

## Contents

<b>FOCUS</b>	함께여서 더 행복한 우리 동네 맛집 ‘경로식당’	/ 04
<b>생생정보Talk</b>	누구나 레시피 - 냉이 콩나물밥	/ 07
<b>유쾌한이야기1</b>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복지관 사업 소개	/ 08
<b>유쾌한이야기2</b>	풍성함이 가득한 설 명절 2017년 설맞이 한사랑나누기	/ 10
<b>유쾌한이야기3</b>	한 코, 한 코 정을 엮고 즐거움을 나누는 ‘손뜨개 모임’	/ 12
<b>방화6NEWS</b>	1월~3월 복지관 주요활동 한 눈에 보기	/ 14
<b>유쾌한이웃1</b>	우리 마을 따뜻한 이웃 ‘방화 떡 방앗간’	/ 18
<b>유쾌한이웃2</b>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는 ‘생명보듬이’	/ 20
<b>참, 고맙습니다</b>	따뜻한 이웃, 선한 이웃 소개	/ 21

발행인 김성미 | 편집인 남정교 양종철 오영지 이미진 | 발행처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전화 02-2666-6181~3 | 팩스 02-2666-6184 | 홈페이지 www.banghwa6.or.kr  
 주소 서울시 강서구 금녕화로 23길 25(방화동, 방화6단지아파트) | 디자인/인쇄 리치애드

# 함께여서 더 행복한 우리 동네 맛집 경·로·식·당

이른 아침,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지고,

‘띵동’ 우리 동네 곳곳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진다.

“어르신~ 식사 왔어요!”

“복지관이에요~ 도시락 배달 왔어요!”

우리 동네 아침을 여는 경로식당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 자원봉사자 SAY:

“우리는 해피해!”

경로식당이요? 이른 아침 복지관에 와서 식사 준비하는 것이 여간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쁩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었어요.” 라는 말 한마디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아버리더라고요.

우리의 봉사는 다양해요. 쌀 씻는 사람, 채소 밀 작업 하는 사람, 도시락배달 포장하기 위해 그릇 가지고 오는 사람, 양념하는 사람……. 하는 역할, 봉사 시간, 나이까지 모두 제각각 다르지만, 어르신들이 점심 한 끼 맛있게 드시라고 준비하는 따뜻한 그 마음 한 가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참으로 즐거워요, 남을 위해 시작한 봉사지만 결국 내가 더 얻더라고요. 때론 쉬고 싶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 봉사활동이 나의 삶의 또다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기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네요~



## 영양사&조리사 SAY:

“나는 더  
해피해요!”

경로식당? 바쁘죠! 진짜 엄청 바빠. 아침부터 봉사자 선생님들이랑 복닥복닥 모여서 식자재를 확인하고, 식사 준비하고, 배달 준비하고, 또 배달 나가고, 어제 나간 도시락통 씻어서 말리고... 휴.. 잠깐 쉬었다가!

어르신들 식사 하시러 오시면 인사도 하고, 배식도 하고, 그렇게 한바탕 휘몰아치면 어느새 기운이 주욱 빠져서 파김치가 되어 버려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맛있다’ 한 마디 하고 가시면 그렇게 보람찬 일이 또 없네요!

봉사자 선생님들, 어르신들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식당의 하루가 흘러가면 ‘아~ 오늘 하루 보람차게 끝났다.’란 생각이 들지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맛있게 잡수고, 또 건강하게 오랫동안 식사하러 오시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니깐요!



어르신 SAY:

“우리 함께(together) 합시다!”

경로식당? 아~ 좋지! 얼마나 좋아.

우리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자 사람 만나는 곳이지.

아침부터 삼삼오오 모여서 사람 사는 얘기, 우리 동네 이슈,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런 거 하다보면 어느새 시간이 후딱 가버려.

일부러 사람 만나려고 식당 오는 사람들도 있다니깐?

게다가 경로식당에서는 다양한 것도 많아. 특히 생신잔치도 해주는데.

아이고~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 요즘은 자식들도 바빠서 이렇게 못해줘.

내 생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니 정말 행복하고 기쁘지. 요새는 우리끼리도 생일 축하한다는 덕담 한 마디 보내고, 한 해 또 건강하게 보내라는 마음먹으며 축하 박수 보내지.

참으로 경로식당 밥이 맛있어.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갓 지은 밥에 반찬 먹으면 혼자 대충 물에 만 밥에 김치랑 먹는거보다 곱절은 더 맛있지! 최고야 최고! 이게 바로 맛있는 밥 한 끼의 힘 아니겠어? 허허.



인터뷰 | 서예지 사회복지사

FOCUS

맛있는 밥한 끼, 경로식당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월~토요일 경로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점심 한 끼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 봉사분야 | 식사배달(도시락, 밀반찬), 식사조리, 설거지
- 봉사활동시간 | 매주 월~토요일  
 식사배달 - 오전 9시 30분~오전 10시 30분  
 배식봉사 및 설거지 - 오전 9시~오후 1시 사이  
 식사조리 - 오전 8시~오전 9시
- 문의 | 02-2666-6181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생생정보 Talk!



김진희 주민

주민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는 누구나 강좌에서 반찬 만들기 강좌 주민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진희 주민의 냉이콩나물밥 만드는 방법입니다.

퐁퐁 언 겨울 땅을 뚫고 나온 봄나물을 먹으면 기력 보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냉이 콩나물밥



재료 손질

- 1 쌀을 씻어서 30분 이상 불려준다.
- 2 냉이는 흠을 잘 털고 깨끗이 씻어준다.(특히 뿌리부분은 잘 씻어야 흠이 씹히지 않음)
- 3 건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에 담가 불려준다.



조리

- 1 소고기와 불린 표고버섯을 채썬다.
- 2 콩나물은 꼬리를 다듬어 준비한다.
- 3 냉이는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 뿌리부분과 잎부분을 나눠 둔다.
- 4 소고기와 표고버섯에 간장, 파, 마늘, 후추, 깨, 참기름으로 양념한다.
- 5 불린쌀에 콩나물과 냉이의 뿌리 부분 그리고 양념한 소고기와 표고버섯을 넣고 밥을 짓는다.
- 6 밥이 끓고 뜸 들일 때 냉이의 잎 부분을 넣어준다.(압력 밥솥 사용 시 함께 넣고 함)
- 7 간장에 달래를 0.5cm 길이 정도로 썰어 넣고 참기름을 넣어 양념간장을 만든다. (취향에 따라 양념간장에 고춧가루 추가)
- 8 완성된 밥에 달래간장을 넣어 비벼 먹는다.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 복지관 사업 소개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빨리 가려거든 직선으로 가라. 멀리 가려거든 곡선으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 인디언 속담

어릴 적 체력장을 떠올리면 오래달리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에 진행하는 가장 힘든 종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달리기에서는 시작 신호와 함께 모두가 앞만 보고 빨리 달려 나가는 100m 달리기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신체 조건과 상태에 따라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할 수도 있고, 옆의 친구를 살피면서 달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빨리 뛰라고 재촉해도 뒤쳐진 옆 친구의 손을 잡고 도착점까지 걸을 수 있는 것이 오래달리기의 매력입니다.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인디언 속담처럼 우리의 삶도 오래달리기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 봉사자, 후원자가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구성하고 결정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과 손잡고 가는 것, 그것이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함께 멀리 가기 위해, 새로이 시작하는 복지관의 2017년 사업들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 꿈지원센터-인문학 모임

- 함께하는 이 : 꿈지원센터 장학생과 호박상자 봉사자
- 함께하는 활동 : 독서 토론 및 이슈 논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관을 넓히는 인문학 모임
- 함께하는 날짜 : 매월 2, 4주차 수요일 저녁 7시

## 커뮤니티디자인사업-누구나 강좌

- 함께하는 이 : 지역주민 누구나
- 함께하는 활동 : 주민재능 공유를 통한 공예, 예술, 교양 강좌 운영
- 함께하는 날짜 : 3월~6월, 9월~12월 강좌별 상이



## 커뮤니티디자인사업-풍뎉뎉 놀이터

- 함께하는 이 : 지역학부모 및 아동
- 함께하는 활동 : 지역아동 공동체 활동 공간운영 및 대어, 장난감 교환 장터, 레크리에이션 활동
- 함께하는 날짜 : 매월 2주차 금요일



## 가족행복지원사업-맘자람 프로젝트

- 함께하는 이 : 아이(I)마음상담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 및 자녀를 양육하는 지역주민
- 함께하는 활동 : 상담센터 이용 아동 보호자들과의 정서적 지지 체계 마련을 위한 강심장 부모모임, 자녀 양육 관련 부모교육
- 함께하는 날짜 : 매월 2, 4주차 금요일 오전 10시



## 포레 놀이터-어깨동무

- 함께하는 이 : 어깨동무 참여아동과 ABO 희망비타민 자원봉사단
- 함께하는 활동 : 협동, 배려의 경험을 위한 단체 스포츠 게임, 협동 모자이크, 도미노 활동
- 함께하는 날짜 : 매월 1회 수요일 오후 3시



2017년, 1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만남을, 새로운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봄을 생각하면 가슴이 뻥뻥합니다. 봄날 같은 여러분들이 복지관에 따뜻한 기운을 가득 안겨주실 것 같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주민들의 배움, 어르신들의 행복이 어우러져 꿈들이 생동하는 마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장에는 뒤쳐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너무 늦게 가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함께' 걸어가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새로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는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남정교 사회복지사

## 풍성함이 가득한 설 명절

# '2017년 설맞이 한사랑나누기'

새벽을 여는 붉은 닭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기 이웃과 함께 넉넉함을 나누는 방화동의 새해 아침 풍경을 소개합니다.

### 핑둥~ 핑둥~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1월 23일(월)~24일(화), 양일간 방화3동 지역단체 회원들과 공항리무진 달구지회 회원, 아시아나항공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이웃들에게 전달 할 명절선물을 정성껏 포장하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이웃과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눕니다.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다음에 뵈 때까지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매년 이렇게 찾아오니 꼭 아들네가 오는 것처럼 명절이 기다려져.”

여느 시골 마을의 명절 풍경처럼 자식네들을 기다리는 부모님과 설레는 마음으로 귀향하는 자녀들의 정겨운 모습을 우리 마을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 정이 가득 담긴 새해 덕담 나눔

“새해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한 해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오히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큰 선물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명절선물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자를 위해 연하장을 준비하셨습니다. 혹여나 전하고픈 감사한 마음이 글로 다 담아지지는 않을까 몇 번이고 내용을 고치시는 어르신과 어르신들의 진심을 생각하며 연하장에 적힌 글자 한 자, 한 자에 눈을 떼지 못하는 자원봉사자를 보며 어르신과 자원봉사자 간의 참 만남의 의미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 따뜻함이 오가는 세배 인사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운데 오느라 고생 많았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상록어린이집 원아들이 명절에 더 외로움을 느끼시는 마을에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세배 인사를 하였습니다. 세배를 하는 원아들이 손주 같으신지 어르신들은 한 명, 한 명씩 안아주며 덕담을 건넸고, 한 어르신께서는 줄 수 있는 것이 사탕과 요구르트 뿐이라며 원아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유쾌함이 있는 '설맞이 한사랑 한마당'

1월 25일(수), '설맞이 한사랑 한마당' 행사를 복지관 지하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주민들의 새해 소망과 다짐이 한 장의 폴라로이드 사진에 담겨 소망나무의 열매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삶',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오래오래 같이 살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 등 주민들의 모든 다짐과 소망이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새해 덕담 영상편지 상영으로 '2017 설맞이 한사랑 한마당'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덕담 영상편지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 등 주민이 함께 했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각기 다른 영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하는 이웃들을 보며 따뜻한 우리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공연 행사에서 첫 번째 공연팀으로는 큰나무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큰나무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클래식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친근하게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곡들로 공연을 했습니다. 고향의 봄을 들으시며 눈물을 흘리던 한 어르신의 모습은 음악 이상의 감동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설맞이 한사랑 나누기'는 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한 마을 축제였습니다. '서로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배려하며 살아가자'며 덕담을 나눠 주신 고명석 어르신의 말씀처럼 올 한해, '감사함'과 '배려'가 넘치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이 되길 희망합니다.

글 | 양종철 사회복지사



# 한 코, 한 코 정을 엮고 즐거움을 나누는 '손뜨개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소니에서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소니에는 수세미를 뜨고 있는 손뜨개 모임 참여 주민들이 제각각 딸기모양, 드레스모양, 별모양의 수세미를 뜨고 있습니다.

손뜨개 모임이 시작된 것은 작년 5월입니다. 안혜정, 이윤경 주민의 재능공유로 손뜨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9명의 주민이 뜨개를 배우며 어울리고 배운 것을 활용하여 이웃과 나누기도 하는 모임입니다.

지난 1월에는 지역 내 독거어르신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목도리 뜨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들 목도리정도는 뜰 수 있으니 우리 동네에 사는 이웃들에게 전달해드리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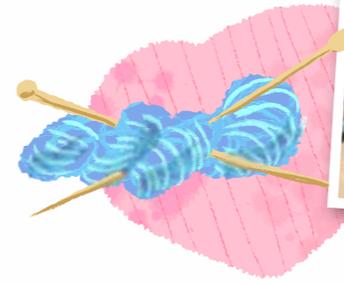
“좋아요. 그럼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에게 선물해요.”

“날이 따뜻해지기 전에 빨리 뜨는 것이 좋겠어요! 금요일에도 모일까요?”

다양한 의견 속에 활동에 대한 애정과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코, 한 코 정성을 담아 목도리를 완성하고 이것을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이 우리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3월부터는 5월 26일, 27일 진행 될 방화나눔축제에서 수세미를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고자 뜨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와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을 함께 하며 어울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화요일에 다소니로 놀러오세요!

글 | 오영지 사회복지사



‘나에게 손뜨개 모임은 ○○이다.’

수다방

나에게 손뜨개 모임은 ‘수다방’입니다. 매주 화요일 손뜨개 모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한주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 박현순

도시락

손뜨개 모임은 나에게 ‘도시락’입니다. 도시락은 어떤 반찬이 들어 있을지 상상하며 기대하게 되고, 도시락 속 맛있는 음식들은 나를 즐겁게 해 주잖아요. 손뜨개 모임도 저에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모임에 가기 전에는 즐거운 상상을 하게하고, 모임에 와서는 이웃들을 만나서 즐겁고 재미있어요.  
- 안혜정

가족

나에게 손뜨개 모임은 ‘가족’입니다. 우리 모임에는 서로를 편안하게 대해주고 작은 것도 챙겨주려고 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꼭 가족 같아요.  
- 안순자

카페

나에게 손뜨개 모임은 ‘카페’입니다. 뜨개 모임을 할 때 꼭 커피를 마시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수다도 떠니까 친구들과 카페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 김선희

치매 예방약

나에게 손뜨개 모임은 ‘치매 예방약’이에요. 모임에 나오면 선생님들이 항상 새로운 뜨개를 가르쳐주니까 머리도 쓰게 되고 손도 움직이게 되어서 치매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김영희

삼의 활력소

나에게 손뜨개 모임은 ‘삼의 활력소’입니다. 손뜨개 모임에 오면 열심히 뜨개를 배우는 이웃들의 만날 수 있고, 가끔은 맛있는 밥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먹기도 해요. 이게 어찌나 즐거운지,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힘 없이 웃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은 내 삼의 활력소예요!  
- 이윤경



2017년 4월~6월 복지관 주요 활동 한눈에 보기

## 2017년 공모사업 선정 BANGHWA6 NEWS

### • ABO 희망비타민 자원봉사단 지원사업

2017년 1월, 한국암웨이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지원하는 '2017 ABO 희망비타민 자원봉사단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이 협동과 배려를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2017년 2월, 삼성공정학재단이 지원하는 '2017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에 다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삶에 주도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2017년 3월, 강서구청이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및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 건강지킴이사업

2017년 3월, 한국암웨이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지원하는 '2017 건강지킴이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방화동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아동/가족/지역사회 측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역특화사업

2017년 3월, 서울시복지재단이 지원하는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역특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지역 내 청년들과 함께 관계망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 마을공동체지향 지속화 공모사업

2017년 3월, 서울시복지재단이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지향 지속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주민참여·주민주도 중심의 복지사업과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 공유축진사업

2017년 3월, 서울시청이 지원하는 '공유축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놀이도구 공유를 통해 지역 아동의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아동&청소년 BANGHWA6 NEWS



### 똑똑 문화플래너 '문화초대파티'

1월 13일(금), 똑똑 문화플래너에서는 그동안 경험한 문화활동에 대해 지인·가족과 나누는 문화초대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기획단 청소년이 직접 문화초대파티를 기획하고, 자신들이 준비한 공연도 열어 봄으로써 지난 일 년 간의 활동에 대해 지인과 가족에게 알릴 기회가 되었습니다.



### 똑똑 문화플래너 '문화기행'

1월 19일(목)~1월 20일(금), 연간활동을 마무리하며 강원도 춘천 인근으로 문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활동을 통해 경험도 넓히고, 문화워크숍을 진행하며 2017년 문화기획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교육문화 졸업이벤트

2월 4주 교육문화프로그램에서 초·중·고 졸업하는 아동들을 축하하기 위해 졸업축하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새 학기를 위해 필요한 학용품과 졸업상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펼칠 아이들을 위해 응원 바랍니다.



### 꿈틀꿈틀 놀이터 '꿈틀꿈틀데이'

2월 24일(금), 3월 10일(금) '꿈틀꿈틀 놀이터'에서 전통놀이대회, 무비데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회규칙을 정하고, 보고 싶은 영화를 직접 선택하여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꿈틀꿈틀데이'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 똑똑문화플래너 '실무관계자 회의'

3월 13일(월), 똑똑 문화플래너 실무관계자가 모여 2017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청소년들의 역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에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 동기유발 프로젝트 '실무협의회'

3월 13일(월), 동기유발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할 한서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지원하기 위해 한서고등학교 진로담당교사와 복지관 담당자가 모였습니다. 2016년도 활동을 돌아보며 성과를 확인하고 보완점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2017년에는 청소년들의 진로활동이 더 활발하고 의미 있게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아이-듬 123 프로젝트 '참여가족 OT'

3월 28일(화), 2017년 '아이-듬 123 프로젝트V'에 참여하는 22명의 가족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간 진행되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끔 각 가정의 어떤 건강실천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목표를 적으며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 아이(이)마음상담센터 '간담회'

3월 28일(화), 아이(이)마음상담센터에서는 1분기 제공인력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간담회 진행을 통해 치료실 방음과 양식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월에 진행되었던 특수교육지원사업(군센카드) 현장점검 결과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만들기교실 '공개강좌' / 만들기교실 아동 자격증 취득

3월 28일(화) 교육문화사업의 만들기교실에서 학부모 공개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명함꽃이를 함께 접으며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박경택 아동이 종이접기 자격증 3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종이접기 자격증 취득을 통해 아동의 참여동기를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 어르신 BANGHWA6 NEWS



### 일상생활지원사업 '이미용서비스'

1월~3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금요일, 가위손봉사대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용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청결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서및여가지원사업 '해피데이'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경로식당에서는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신잔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술밥을 드시는 경로식당의 식구인 어르신들이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고 나눴습니다. 생신잔치는 생신인 어르신과 생일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 정서및여가지원사업 '해피투게더-웃놀이 대회'

2월 11일(토), 귀뚜라미복지재단 직원들로 구성된 결연자원봉사자 11명과 지역 내 어르신 7명이 함께 단체활동의 일환으로 웃놀이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활동에 참여하신 한 어르신께서는 '정월대보름 명절에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설날보다 더 즐거웠다.'는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처럼 웃놀이를 통해 결연자원봉사자와 참여 어르신 간 관계를 증진할 수 있으며 참여 어르신들끼리도 친목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 보건의료사업 '명동수치과' 후원진료

3월 3일(금), 24일(금),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중 치과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4명에게 본 복지관과 상호 교류 협력협약 치과인 명동수치과와 연계하여 후원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내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및 틀니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귀뚜라미 페이스북 기부 이벤트 '온수매트 전달'

귀뚜라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진행했던 귀뚜라미와 함께하는 기부 릴레이 '#클릭\_하나의\_기적' 이벤트를 1월 4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기부가 되어 '좋아요'수가 837개가 달성되어 3월 9일(목)에 이웃들에게 8개의 온수매트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 이웃에게 8개의 온수매트를 전달 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늘만나 한밥상터 '밥상지기 활동'

3월 14일(화)~3월 17일(금), 늘만나한밥상터 어르신들이 모여 경로식당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늘만나한밥상터 참여 어르신들이 직접 준비에 참여하여 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금일 캠페인 활동으로는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신발 주머니 나눔 활동 및 두줄서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시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좋다'라고 외치십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경로식당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해서 의미있었습니다.



###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2017년 노노케어 발대식'

3월 23일(목), 노노케어 참여자 10명의 어르신과 함께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2017 노노케어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발대식을 통해 2017년 노노케어 사업의 진행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진행한 교육을 통해 노노케어 활동에 대한 인내와 연간 사업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 지역주민 BANGHWA6 NEWS



### 우리동네음악회 '생생콘서트'

1월 20일(금), 복지관 강당에서 2017년 우리동네음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관계를 맺어온 강서필청소년오케스트라의 재능공유로 주민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연을 통해 주민들이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주민만나기 외부부스

2월 1일(수), 3월 29일(수) 주민만나기 외부부스를 통해 지역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 주민만나기 외부부스에서는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월 4주 수요일 지역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꿈나래통장 적립금 설명회'

2월 20일(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꿈나래통장 11-2차 참가자들의 적립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알 수 있는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5년 동안 꾸준히 저축한 보람도 나누며 졸업하는 아쉬움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꿈나래통장 11-2차 참가자분들 수고하셨고,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 지역단체 간담회

2월 21일(화), 복지관에서 지역단체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1분기 지역단체 간담회에는 나눔행복봉사단, 청소년선도위원회, 자유총연맹, 구정평기단, 재향군인회 총 5개 기관이 참여하여 지역 내 현황에 대한 공유 및 사업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지역단체 간담회는 정기적 지역단체 간담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첫 시작으로 그 의미가 큼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진행하여 지역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SH 여행 북카페 '수다번개'

2월 23일(목)~24일(금), 3월 30일(목)~31일(금), 북카페에서 수다번개가 진행되었습니다. 2월 이마나 주민의 재능기부로 양말인형만들기, 3월 이윤경, 안혜정 주민의 재능기부로 수세미뜨기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수다를 떨며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할 방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누구나강좌 '강사 간담회' 및 '기초교육'

2월 28일(화), 누구나 강좌 운영 목적을 공유하고 실행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마을배움터로 자리매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자조모임 간담회'

3월 8일(수),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희망두배청년통장 참가자들의 소규모 모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모임의사를 밝힌 참가자들 총 4명이 참여하여 모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서구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직원 BANGHWA6 NEWS

### 2017년 기능보강사업 선정

2017년 기능보강으로 경로식당 리모델링과 복지관 하수관 보수공사에 대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래된 바닥, 벽면과 식탁, 의자 등 경로식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물 내부 배관의 구조 문제와 노후 된 복지관 오수와 하수관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2017년 방화6직원들의 유쾌한 시작 '시무식'

1월 2일(월), 2017년 시작을 여는 시무식을 통해 방화6직원 모두가 도약을 위한 준비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에는 지역주민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하며 팀별 실천 계획을 나누고, 새해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방화6의 유쾌한 2017년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방화떡방앗간 '손일순' 후원자님



“작은 곳에서부터의 실천,  
나눔의 시작입니다”

방화6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방화3동의 터줏대감, 방화떡방앗간 '손일순' 후원자님을 소개합니다.

Q 사장님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단지 지하상가 방화떡방앗간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손일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1994년도에 방화동으로 이사와 이곳에 터를 잡은 지도 언 13년이 되었네요. 저는 아파트 입주 시부터 계속 떡집 장사를 하며 가족과도 같은 이웃들과 만나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눔 것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소식지에까지 실린다니 너무 부끄럽네요.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Q 방화6종합사회복지관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처음부터 후원하고 봉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내가 어떻게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곳은 바로 복지관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저희 떡집을 자주 이용하시면서 얼굴을 익힐 수 있었고, 복지관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떡 후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환경에 많은 양을 후원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었지만 작은 힘이지만 복지관 뜻에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Q 후원자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요?

저는 잠실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가장 좋았던 점은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처에 공원도 많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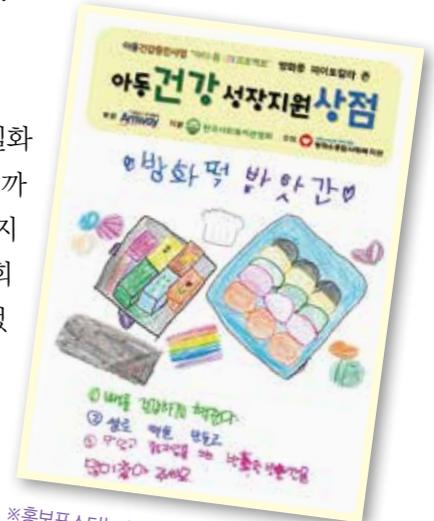
동네가 정말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욱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장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손님들이 단순한 손님들이 아닌 가족과 같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손님 이상의 가족, 이웃과 같은 존재입니다. 동네에 살면서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원동력인 셈이죠. 우리 동네는 정이 넘치는 동네입니다.

Q 후원자님에게 나눔이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나눔을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후원과 봉사를 하며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러한 마음들은 저를 건강하게 합니다. 저는 많은 나눔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이 오시면 떡 하나라도 더 잡수실 수 있도록 조금씩 싸서 드리거나 배달을 갈 때 하나씩 넣어 드리거나 합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나누는 것이 후원의 시작이 아닐까요?

Q 나눔을 실천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점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장사하느라 직접 가져다 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많은 일화는 없어요. 그런데 최근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네요. 작년까 지 매주 수요일에 떡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웬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저에게 가져다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복지관을 이용하며 저희 떡을 먹고 있던 아이들이 모여 편지와 그림을 그려 고맙다며 가져 왔었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데도 계속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중에 자랑도 하려고 집에서 잘 보관 중이랍니다. 이런 기쁨 때문에 제가 계속 후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포스터는 참여아동이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콩 하나라도 나누는 것이 나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유해서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제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원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저는 주변에 봉사하고, 후원하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람들에게는 잠깐이라고 함께 해보자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말 행복함을 느낍니다. 시작이 반이고 행복함은 얼굴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해도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주변의 많은 분이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눔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나눔과 실천을 통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 이동준 사회복지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꿈꾸는

# 생명보듬이

## 1.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 동네 어르신 중 우울한 마음으로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전문적으로 상담도 진행하고, 함께 나들이도 가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우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생명보듬이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2. 생명보듬이 활동을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2015년에 자살예방지킴이교육을 복지관에서 받았고, 그 이후에 이 활동에 대해 제안을 받았습시다. 그 당시 봉사활동을 해야되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막상 활동을 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제안을 받고 내가 받은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3. 생명보듬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한가지는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나오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어르신이 차츰 마음이 열리시며 나중에는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힘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해주실 때, '나를 믿고 이야기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또 한가지는 어르신들과 예전에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로 여행갔을 때가 기억이 남아요. 평소 생활하는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에 함께 나들이로 가면서 버스에서 게임도 하고, 다들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아무 때나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어르신들은 가시는 것 자체로 행복해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한 어르신이 "아들의 죽음으로 요새 힘들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이 활짝 열었다고 느낌을 받았었고, 그 때가 가장 인상깊게 남은 것 같아요.

## 4. 앞으로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더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큰데, 교육받은 것을 아직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더 자주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할 것 같아요.

## 5. 지역 주민들에게 동참을 위한 메시지

우리 마을이 모두가 행복한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어려운 분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도와줘야하지?'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을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생명보듬이활동을 통해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마 모두가 함께 더불어가기위한 마을을 꿈꾸는 것 같아요. 이 활동에 함께 동참하여 재능을 나눔으로써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이 힘들거나 부담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많은 동참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생명보듬이 김선미 님 -



# 참, 고맙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희망이 모여 따스한 빛을 만들어갑니다.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예산

### > 2016년 결산

세입			세출		
구분	예산	결산	구분	예산	결산
사업수입	206,860,000	200,543,460	사무비	827,460,000	800,768,748
보조금수입	1,196,824,000	1,194,812,350	재산조성비	63,912,000	42,393,879
후원금수입	282,430,000	274,697,872	사업비	921,693,000	854,327,411
법인전입금	90,000,000	90,000,000	잡지출	15,000,000	13,952,000
이월금	149,071,000	148,935,521	예비비및기타	113,920,000	645,022
갑수입	16,800,000	16,195,803	차기이월금	0	213,097,946
계	1,941,985,000	1,925,185,006	계	1,941,985,000	1,925,185,006

### > 2017년 예산

세입		세출	
구분	결산	구분	결산
사업수입	206,860,000	사무비	917,720,000
보조금수입	1,178,133,000	재산조성비	63,912,000
후원금수입	298,950,000	사업비	837,284,000
법인전입금	83,000,000	잡지출	20,000,000
이월금 및 갑수입	236,114,000	예비비및기타	164,141,000
총계	2,003,057,000	총계	2,003,057,000

### 2016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지출 내역

#### > 후원금 수입

(단위 : 원)

구분		금액
전년도후원금 이월금	지정후원금	1,635,000
	이월금	11,122,874
	결연후원금 이월금	25,430,786
2016년	비지정후원금 이월금	48,443,000
	지정후원금	125,940,542
	지정사업후원금	100,314,330
비지정후원금		312,886,532
합계		312,886,532

#### > 후원품 수입 및 지출내역

수입	지출
빵 외 491건	빵 외 661건

#### > 후원금 지출

(단위 : 원)

지출항목	지출
장학사업	35,920,800
결연후원사업	9,921,380
사례관리사업	34,544,712
서비스제공사업	82,022,476
지역사회조직사업	96,341,085
기타(수용비)	2,000
차년도 이월금	54,134,079
합계	312,886,532

2017년 1분기 후원금/품 수입 및 지출 내역

» 후원금 수입 (단위 : 원)

구분		금액
전년도 후원금 이월금	지정후원금 이월금	1,535,000
	결연후원금	24,175,795
	지정사업후원금	28,423,284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11,245,000
	결연후원금	34,420,809
	지정사업후원금	14,317,100
비지정후원금		114,116,988
합계		

» 후원품 수입 및 지출내역

수입	지출
건고추 외 162건	빵 외 223건

» 후원금 지출 (단위 : 원)

지출항목	금액
장학사업	9,112,440
결연후원사업	2,272,240
사례관리사업	9,921,430
서비스제공사업	6,053,800
지역사회조직사업	12,047,500
기타(수용비)	1,000
반환금(청소년문화동아리)	3,987,227
합계	39,407,410

» 후원자

결연후원금

- 개인 후원자** 강미란, 김소연, 김윤석, 김택균, 남미현, 박찬익, 신익현, 심용진, 오경옥, 유경애, 유병규, 이영란, 임선숙, 정태연, 정창동, 정희숙, 조재형, 진옥자, 최진주, 하석원, 하재덕(장산화학)
- 단체 후원자** 공항리무진 달구지회, 밀알회(구경옥, 김란, 김미애, 김선희, 김성희, 안미경, 이경옥, 이미남, 이숙희, 이소섭, 이영숙, 이영화, 이정례, 이해경, 임숙희, 장화숙, 정미숙, 지공엽, 지정란, 최미경), 삼성SDS, 어린이재단, KBS강태원복지재단, KDB나눔재단

일반후원금

- 개인 후원자** 강은수, 구은경, 국준영, 국준호, 김미경, 김복순, 김선주, 김성미, 김성훈, 김연진, 김영희, 김용동, 김원석, 김지민, 남궁명, 남상수(신도에스큐), 남정교, 도재연, 문지연, 박경원, 박남진, 박석우, 박시인, 박정애, 박혜경, 박희순(대일기업), 백낙일, 변새봄, 변지영, 서예지, 석지은, 손향미, 송영자, 신동준, 신종훈, 심용진, 심혜수, 양순홍, 양종철, 오영지, 유지연, 윤상문, 윤소원, 윤영은, 이계남, 이덕재, 이동준, 이미진, 이선영, 이은파, 이재유, 이종호, 이희성, 임지혜, 임하은, 전해천(전PD), 정궁희, 정귀진, 정명식, 정문수, 정예원, 정윤슬, 정지영, 정호숙, 최민경, 최용, 최유경, 최진주, 하정민, 홍범식, 홍윤순, 황순덕
- 단체 후원자** 5단지관리사무소, 금강프라자관리사무소, 김포공항기상대, 나눔행복봉사단, 미래에셋생명보험, 바르게살기위원회, 방화3동 적십자, 방화3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꿈장학재단, 서울도시철도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재향군인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캐피탈노동조합

후원품

- 개인 후원자** 권용애, 김경희, 김영랑, 김홍렬, 문정훈(애플), 박은주, 최선영
- 단체 후원자** 강서푸드뱅크,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귀뚜라미복지재단, 농민신문사, 더나눔법인,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서울광역푸드뱅크, 시아스, 아이들과미래, 어린이재단, 영신교회, 전국재해구호협회, 주식회사사이메스산업유통, 큰나무교회, 통진회, 파리바게트 화곡역점, 파리크라상(목동점),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디딤돌 후원업체** 마산아구집, 방화떡방아간, 우리분식, 임가네떡집, 토마토안경, 파리바게트 화곡역점, 하늘약국

자원봉사자

- 무료급식** 강양순, 구민자, 김기학, 김선웅, 김성연, 김남주, 김다현, 김영자, 김민경, 김상국, 김선웅, 김세중, 김소경, 김시현, 김신자, 김연, 김영자, 김용언, 김재하, 김지우, 김진수, 김훈향, 김호진, 남정희, 남혜진, 문동진, 박세훈, 박영호, 박은정, 방찬식, 서예지, 석운기, 손인순, 송성희, 송의찬, 신옥자, 안영자, 안정은, 안운중, 양다연, 양명선, 오화은, 유연미, 유지항, 윤소형, 이강례, 이강분, 이강훈, 이근희, 이광재, 이다영, 이동희, 이상숙, 이상희, 이순희, 이승연, 이영숙, 이정자, 이정현, 이종민, 이종현, 이종현, 이철원, 이호진, 임성우, 임재민, 임정민, 장근희, 강형주, 전은경, 전용진, 정도영, 조귀녀, 조민경, 조재원, 진금희, 최경선, 최경순, 최순덕, 최영자, 최준원, 추은자, 하순희, 하애경, 한원일, 한재서, 허성빈, 허준서, 홍미경, 홍인숙, 홍재민, 홍지호, 황남이
- 건강관리실** 김병욱, 안순자
- 영양식** 박영화, 영신교회, 큰나무교회
- 이미용** 강숙자, 고숙자, 고영옥, 권영순, 김경숙, 김해옥, 박정심, 신명희, 유영열, 이귀영, 이지은, 정명숙, 최광남, 허문순
- 어르신 정서 지원** (귀뚜라미 봉사단) 고광선, 김건업, 김경래, 김경호, 김동연, 김은주, 남경래, 라하니, 박근호, 박성빈, 박성은, 오주영, 윤자나, 윤경석, 장지은, 최은주, 최상윤
- 가정도우미 파견 서비스** (아시아나 봉사단) 김선호, 박영호, 박용선, 신희준, 우성준, 이상규, 제민중, 한승철, 허영범
- 이동목욕서비스** 김경래, 김순례, 김영이, 박병욱, 박은숙, 백종희, 백현수, 서영순, 석운기, 송점복, 신승희, 이맹근, 이미연, 이윤희, 조영훈, 최동진, 최영애, 최정임, 하은주, 황보영희
- 인문학모임** 이지혜, 합상원
- ABO 희망비타민 자원봉사단** 강인애, 노진선, 박미향, 박윤희, 백미나, 백승로, 송미숙, 황옥화
- 생명보듬이** 김선미, 황혜성
- 누구나강좌** 김수경, 김순희, 노미순, 안혜경, 이윤경, 한현경
- 학습지원** 김소희, 이철형
- 우리동네음악회** 강민서, 김경연, 김경진, 김남우, 김동건, 김동인, 김윤정, 김희승, 나혜린, 민수홍, 박도영, 배민준, 손재민, 신무진, 신민지, 양동하, 양성아, 원찬희, 윤제민, 이정우, 장하영, 정다윤, 정린, 정영우, 정유진, 조민형, 조민희, 최세린, 최은희, 한채연, 허예은
- 한사랑나누기** 강대분, 강영희, 강미숙, 강인순, 고석봉, 공준석, 구민자, 김국희, 김기학, 김나을, 김남순, 김담, 김동천, 김동욱, 김리림, 김문수, 김미경, 김보선, 김성현, 김승희, 김순희, 김유진, 김은아, 김정숙, 김종필, 김효순, 김혜준, 박보림, 박은배, 성주현, 손일순, 송한나, 신성자, 신순혜, 연정희, 오계록, 양승원, 윤선희, 윤지은, 이시은, 이은서, 이정희, 이화진, 이희원, 임소민, 장남희, 장현숙, 정귀진, 정노적, 정문상, 정순옥, 정지원, 조하람, 조한석, 차승인, 최서진, 최윤미, 최윤주, 하애경, 한경남, 홍용선, 황의추
- 업무지원** 박지은, 권용수, 김동기, 김동성, 김지우, 김승진, 김호범, 박혜은, 백승준, 라연지, 명은영, 박혜은, 백승준, 서민호, 서윤형, 안영환, 윤민현, 이가연, 이예림, 이다영, 이준혁, 이진아, 이하얀, 채재경, 최재훈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는 5가지 방법!

- 하나! 매월 CMS 경기 후원(자동이체)
- 둘! 농협 하나로마트(방화점) 포인트 후원 방화6복지관(적립번호: 6181) 포인트 적립
- 셋! 온라인 후원 네이버 해피빈 기부-'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검색 http://happylog.naver.com/sjci123.do
- 넷! 물품(생활용품, 도서 등) 후원
- 다섯!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업체 후원 상점, 업체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 후원

당신의 서명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2017. . . .

후원 신청자 \_\_\_\_\_ (서명)  
연락처 \_\_\_\_\_



후원을 희망하는 분은 신청서를 절취하여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달해주시거나 ☎ 02)2666-6181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8-335770 (예금주 :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 ▷ 후원 내역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 후원 문의 : 지역사회조직팀 후원담당자 ☎ 02-2666-6181~3



## 김석규 어르신과 함께하는 강서둘레길 탐방 이야기

김석규 어르신은 연세도 있지만 정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강서둘레길입니다. 매일 매일 강서둘레길을 거닐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강서둘레길의 매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걸어본다면 새로운 우리 마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강서구 둘레길



강서둘레길은 총 세 개의 코스와 자락길로 이뤄져 있습니다. 방화근린공에서 출발해 개화산, 치현산, 서남 환경공원, 강서 한강공원을 잇는 11.44km에 이르는 탐방로입니다. 전체를 둘러본다면 족히 4시간 이상은 소요됩니다.

**1** 강서둘레길은 코스가 다양합니다. 오늘은 김석규 어르신이 자주 다니는 개화산 자락길과 강서둘레길 1코스를 둘러봅니다.

**2** “복지사 선생과 함께 걷기 때문에 쉬운 길로 갈거예요.” 강서둘레길은 아침과 저녁조음에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주로 저녁조음 거닐다가 온다고 합니다.



**4** 자락길은 어르신, 어린이, 보행약자 등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탐방할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강서자락길에는 자연과 더불어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도 있어 여유로움을 한가득 선사합니다.



**3** 김포공항이 한 눈에 보이는 하늘길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상쾌한 봄바람이 가슴까지 시원하게 만듭니다. “하늘길 전망대도 좋고, 봉화정도 좋고, 해맞이 공원은 특히 좋고~” 그동안 다니면서 좋았던 곳을 추천했습니다.



김석규 어르신과 함께한 강서둘레길. 여러분도 함께 걸어보길 추천합니다.

니뽕내뽕은 재능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작품과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복지관에 전화(☎02-2666-6181~3) 또는 메일(banghwa@gmail.com)로 신청해주세요.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총간소음의 해결책은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총간소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에 큰 목소리로 떠들지 않고, 문도 부드럽게 여닫고, 걸음걸이도 살살!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마음가짐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 '꿈지원센터' 장학생 김진호 학생이 건네는 실천 한 마디 -



**Kiturami 복지재단**  
**방화6 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23길 25 (방화동, 방화6단지아파트)  
Tel. 02-2666-6181~3 Fax. 02-2666-6184 www.banghwa6.or.kr

